

文

龍 : 서울大 助教授 · 영문학

韓國人과 外國語

——그 社會·心理·言語學的 斷面——

1

종전 나쁘건, 그리고 自意였건 他意였건 간에 우리 韓國人은 外國語에 대해서 남다르게 銳敏한 國民이다. 폐 오래된 The Korea Times 의 Thoughts of the Times 欄을 보면 Andre Fabre라는 분이, 한 外國人的의 눈에 비친 韓國人의 外國語 意識에 關聯된 印象을 寄稿하고 있다. 그 內容인즉 外國에 가면 누구던 그 外國語를 배울 수 있다는데, 적어도 韓國에서는 外國인이 韓國語를 배우기가 힘들다는 것, 그 理由는 많은 韓國인이 外國人과의 接觸을 外國語 練習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韓國에서는 外國語를 안다는 것은 個人的威信을 높여 주고, 보다 좋은 職場과 收入도 약속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發言은 한 外國人的의 눈에 비친 「印象」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대로 同意만은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드라도 韓國人的 耻部를 내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過去를 도리켜 보면, 李朝時代의 우리 先祖들은 漢文이란 外國의 Written language 를 통해서 中國의 文化와 學問을 輸入했는데, 그 中國의 文化와 學問은 바로 우리의 思考 및 生活方式의 規範이 되었었다. 그런가 하면 日政下에서의 韓國人은 터문이 없이 日本語를 國語로 強要 當한 屈辱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日本語가 배움의 道具로 必要했고 生活의 方便으로 不可缺했던 것은 否定못한다. 結果的으로 解放 20年後의 지금까지도 40代以上의 韓國人 가운데는 적어도 <읽기>에 있어서는 韓國語보다 日本語 쪽이 能熟한 사람들이相當數에 다다르고, 筆者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그들

40代以上의 80% 以上이 「日本語를 배운 것은 日帝時의 強要에 依한 것이었지만 獨立한 現在에 있어서는 하나의 外國語를 習得했다는 것이 結果的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다」는 말에 同意하고 있다.

英語가 韓國人の 個人生活에 直接・間接으로 침투하고 있는 現在의 狀況은 너무나도 卑近한 事實이다. 라고는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外國語의 使用이나 普及은 特定한 時代와 社會의 背景을 前提로 하는 만큼, 이와같은 言語의 二重使用 現象을 一律의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런 境遇 言語의 二重使用과 關聯하여, 어떤 特定한 外國語가 어떤 特定한 社會에서 어째서 必要하게 되었는가를 明確하게 診斷한다는 것은 그 外國語에 對한 옳바른 受入態勢라던가(國家的次元에서 볼때는) 그 外國語의 教育・普及의 目的・方法을 規定하고, 나가서는 그에 對한 政策을 樹立하는데 必須의이라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그런데 한편, 같은 時代와 社會의 테두리 안에서도 外國語에 대한 意識과 態度는 現實의으로 각 個人에 따라 크게 다르고 集團에 따라 또 偏差가 있다.

金溶益의 小說 「변천」(原名 From Below the Bridge)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당장 그 개소릴 근처. 알았어? 어디서 배워가지구 와서 씨부리는 거여」「그래두 그 말만 할줄 알문 배는 안골론대유. 그게 우째서 개소리대유, 금싸래기 말이지유」

英語마디나 주워배운 아들을 두고 忠清道 兩班의 後裔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對話인데, 우리는 前者의 態度가 排他的이고 後者의 그것이 功利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對立的인 見解는 우리 周邊에서 흔히 發見되는 類型이기도 한다.

筆者は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도 있다.

「남의 나라 말이란 그나라 사람 땜 칠 程度로 流暢하기 보다는 좀 수수해서 무방하다. 들어보라는 듯이 자신의 流暢함을 의식하고 지껄리거나 무척 흥내를 낼려고 혀를 꼬부리는 外國語는 알립고 아니꼬운 때가 많다. 이는

좋게 말해서 適應性이 強하고 나쁘게 말해서 主體性이 희박한 屬性과도 통하리라. 그런 것들이 섞여서 第三者에게 알립다는 印象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런 혀 꼬부라진 外國語를 듣고 感嘆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요, ~~알~~립게 생각하는 理由가 本人에게는 그런 素質이 없는데서 오는 反動的인 비트려짐일 수도 있고, 그런 혀 꼬부라진 소리를 흥내내는 當事者는 그 自身이 主體性이 不足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 當事者들에 따라서도 또 그런 혀 꼬부라진 소리를 흥내내게 하는 動機는 또 다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端的으로 다음과 같은 質問을 提起해 볼때, ——即, 도대체 왜 우리는 外國語를 배우는 것일까, 外國語가 現實의으로 必要하다 치고라도 果然 中學校 1學年부터 必須(實質의인 意味에서)로 課할 必要가 있는 것일까, 요즘 入學試驗이나 就職試驗에서 外國語가 出題되고 있는 現象은 얼마나 마땅한 일일까, 外國語에 능통하게 되면 당연히 外國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될터인데 이런 境遇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固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外國語에 대한 關心과 國家 또는 民族의 主體性과는 어떤 關係가 있을 것인가, 日常生活에 곧잘 外國語를 섞어 쓰는 사람의心理는 무엇일까,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漢字를 쓰는 것과 外國語를 쓰는 것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外國語를 공부하면 어느 程度나 그의 職業이나 專攻分野에 忠實을 期할수 있을 것인가, 新聞이나 放送에서 外來語를 쓰는 現象은 避치 못할 現象일까, 韓國인이 가장 關心이 많은 外國語는 英語로 치고라도 그러면 第二外國語는 어느 나라 말일까, 그리고 <듣기><말하기><읽기><쓰기>란 네技能 가운데서 韓國인이 가장 관심이 많은 또는 많아야 할 技能의 優先順位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물음은 筆者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 問題點의 一部지만, 그 結論은 決코 쉽지가 않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이런 問題에 대한 反應이 集團에 따라 다르고 個人에 따라 千差萬別인지를 어느 누구에게나 納得이 가는 解答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기는 이말은 우리의 外國語에 대한 意識과 態度가 印象의이고 感情의이며 主觀의으로 흐르기 쉽다는 뜻이며, 獨善의이며 排他的으로 또는 功利의이며

追從的으로 흐르기도 쉽다는 뜻을 内包하고 있다.

앞서 筆者는 個人的 例를 들었지만, 集團의 境遇 손쉬운 例로 英文科學生 對 國文科 學生, 英語教師 對 國語教師, 서울 對 地方學生, 4年制 正規大學 對 2年制 教育大學 또는 美軍部隊 從業員 對 非從業員間에서 우리는, 外國語에 대한 集團의 意識과 態度가 그 集團의 外國語에 對한 利害度와 密接히 聯關되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千差萬別하다는 個人間의 差異는 크게 보아서 그가 所屬하는 集團의 性格과 그의 個人的 背景의 函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筆者는 「個人的 背景」이란 單純化한 한마디를 썼지만, 이 말은 아주 微妙하고 捕捉하기 어려운 要素들이 얹힌 概念이다. 이 概念속에는 그 個人的 年齡, 素質, 性格, 過去의 履歷, 家族環境等의 要素가 包含되고, 어떤 外國語 또는 外國人과 結合된 기뻤던 또는 不快했던 記憶, 劣等感과 優越感, 強한 自意識과 수집음 等等도 그 要因의 例가 된다. 그런데 冷靜하게 客觀的으로 따져 볼때 이와 같은 心理的 要因들은 外國語 自體하고는 關係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外國語에 대한 <바람직한> 態度를 模索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心理的 要素와 外國語 自體를 한번 分離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주 重要해 진다.

2

우리는 흔히 外國語를 공부해 봄으로써 各個言語가 지니는 特定한 文法構造 內至 어휘의 固有한 意味構造를 새삼스럽게 認識하게 된다. 이런 差異를 根據로 言語란 단지 우리의 思考와 感情을 表現하는 道具가 아니라, 그 言語 使用者的 實在에 對한 認識과 世界觀까지를 形成·決定하는 힘을 갖는다는 假說을 展開시킨 것은 Benjamin Lee Whorf 이다.

이 Whorf 의 차라리 劇的이고도 魅力的인 主張은 言語의 二重生活을 考察하는 立場에서도 우리의 關心을 당긴다. 정말 特定한 言語가 認識과 思考, 그리고 나가서는 世界觀까지를 <꾸미고 이기는> 힘을 가졌다면 또 하나의 言語 即, 外國語를 익힌다는 것은 의당 心理的인 變動이나 葛藤을 意味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外國語를 익힌다는 것은 結果的으로 또 하나의 思考方式과 認識體系, 그리고 世界觀까지를 익힌다는 뜻이 될 것이요, 이는 既存의 觀點과는 다른 觀點에서 外部世界를 認識하게 되는 것으로 個人的 内部世界가 그 만큼 넓어졌다는 뜻에서 外國語 習得을 勸獎하는 根據가 될 수도 있겠고, 그 反對로 두개의 思考方式이나 世界觀이 個人的 内部生活에 일으킬 수 있는 心理的 葛藤을 前提로 外國語쪽이 制約·支配하는 思考方式이나 世界觀이 母國語의 그것보다 優勢할 때, 正常的인 母國語 生活이 威脅을 받게 된다고 推論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言語의 相對性 理論을 立證하기 위해서는 흔히 각 言語言가 지니는 <빛깔>의 名稱이 例가 되어왔다. 一例로 푸른 색과 파란 색을 가리키는 빛깔의 名稱이 單一한 言語言의 使用者들은 푸른 색과 파란 색을 두개의 다른 名稱으로 구별하는 言語言의 使用者처럼 이 두 빛깔을 識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例는 言語言가 個人的 知覺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여 준다. 英·美人들이 쉽게 区別할 수 있는 /l/와 /r/의 兩者를 韓國인이 쉽게 識別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英語와 韓國語의 音韻體系의 差異에 起因할 것이다. 역사 言語言가 知覺에 미치는 영향의 例가 되겠다.

Whorf가 든 例로는——Eskimo 人们 英語에서 snow라는 한 마디로 表現하는 事物을 細分해서 <공중에서 내리고 있는 눈>, <地上에 쌓인 눈>, <어름처럼 뭉친 눈>을 각각 달리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있다하여 Hopi 語에 있어서는 하늘을 나는 昆蟲과 飛行機와 飛行士를 부르는 單語가 同一하다고 한다. 이런 境遇 言語言는 果然 外界事物을 表現하는 이름에 그치지 않고, 그 自體가 外界事物의 認識方式임을 들어내 주는듯 하다.

그러나, 그러나. 英語의 How are you?에 該當되는 日常人事를 佛語에서 Comment allez vous(即 直譯해서 How go you?)라고 한대서 佛蘭西人은 動的이고 英國人은 靜的이란 말인가. 韓國語의 文法構造가 英語의 文法構造처럼 <數>의 概念이 까다롭지 않다 해서 그것이 原因이 되어 과연 韓國人の 數學的 頭腦가 英·美人에 比해서 貧弱하며, 韓國語는 흔히 主語가 省略된다 해서 韓國人은 主體性이 희박하다 듣기, 謙讓心이 많다고 推論할 수 있

을 것인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조용히 하라〉든가 〈성이 났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文節에서 英文은 be 動詞나 have 動詞를 써으로서 위의 概念들이 「狀態的」으로 表現되는데 韓國語의 境遇는 形容詞 自體가 動詞의 下位區分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動作的」이지만 그렇다고 韩國人이 英·美人에 比해서 活潑하다고는 아무도 말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George Orwell은 그의 小說 「1984 年」에서 獨裁가 支配하는 未來의 英國에서는 이런 體制에 反抗的인 思考는 表現은 커녕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새로운 言語가 發明된다는 假想을 해보고 있고, 一般意味論의 權威 Korzybski도 明確한 思考力과 社會의 進步는 言語의 改良을 通해서 可能하다는 意見을 開陳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흔히 獨逸에서 難解한 哲學이 發達한 事實을 獨逸語 文章의 複雜性과 關聯시키고 英語에 單音節이 많은 事實과 英國 國民의 儉約性을 直結시키기도 한다. 日本의 某作家는 日本語의 어휘가 적은 것은 日本國民이 寡默하기 때문이라고 斷定하였다. 모두 Whorf의 假說과 一味相通하는 思考들이다.

近者에 와서 이 Whorf의 假說이 큰挑戰을 받았다면 그것은 요즘의 言語學界를 席捲하고 있는 變成文法에 根據를 두고 있다. 一例로 Lenneberg는 近刊의 *The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에서 Chomsky의 理論에 同調하는 立場을 取하여 이 假說을 餘地 없이 反駁하고 나섰다. 그에 依하면 각 言語가 지니는 文法構造의 特異性도 結局 表面構造의 特異性이요, 그런 特異한 Pattern은 實相 同一한 基本的 原則을 통하여 變形된 것이며, 말이란 條件化의 過程을 통하여 어떤 對象에 붙여진 靜的인 レッテル이 아니라, 動的인 概念化의 過程이요, 설사 이 概念화의 過程은 言語와 言語間에 있어서 相異 할 수 있을 망정, (모든 人間에게 共通的인) 生物學的인 決定素에 의하여 調節되는 것임으로 모든 言語에 있어서 말이란 多分히 共通的인 要素를 지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모든 言語가 지니는 普遍的 特性에 焦點을 맞춘 말이다.

그렇다면 그의 假說을 다음과 같이 修正해 보면 어떤까.

〈言語란 認識作用을 全的으로 支配하는 것은 아니다. 比喻的 表現을 쓰자

면 A만을 認識케 하고 B를 認識 못하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言語란 A보다는 B를, 또는 B보다는 A를 돋보이게 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라>고. A와 B 가운데 어느 편을 더 돋보이게 하는가 하는 것을 言語에 따라 다르다. A와 B 가운데 A가 돋보여 졌다면 그 言語社會에서는 A가 B보다도 重要하기 때문이다. 다른 言語社會에서는 B가 A보다도 重要할런지 모른다. 이 差異가 바로 文化的 差異이다.

이렇게 볼 때, 外國語의 習得이란 말하자면 A를 돋보이게 하는 母國語의 認識과 B를 돋보이게 하는 外國語의 認識이 相互 補充함으로써, A와 B를 다같이 新鮮하게 認識할 수 있는 捷徑이 될 것임이 分明하다. 그리고 이런 過程을 通해서 우리는 그 言語에 묻고 스민 文化도 익히게 될 것이다.

筆者는 이글의 序頭에서 外國語에 對한 韓國人の 意識의 銳敏性을 指摘하였다. 그런 韓國人們이 果然 위에서 말한 A와 B를 다 같이 新鮮하게 認識할 수 있는 心理的 過程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일까.

筆者는 우선 이렇게 反問만 던져 놓고 一旦 이글을 맺을까 한다.